

〈특집 2: 근현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근현대 한국 석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권 오 수 *

〈목차〉

- I. 머리말
- II. 연구 현황
 - 1. 1970년대~1990년대
 - 2. 2000년대 이후
- III. 향후 연구 과제

[국문초록]

근현대 한국 석유사 연구는 1973년 석유 파동 직후 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석유사에 대한 접근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부수적인 차원에서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서술되었다. 연구 경향 또한 1964년 울산정유공장 준공으로부터 시작된 정유 산업의 발전 과정에 주로 집중되었다. 이후 한국 석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1989년 해방 후 귀속기업체인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중반 이후 한국 석유의 제도사적 접근,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에 대한 다층적 접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석유 정책, 해방 후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 등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석유사의 종합적 이해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

*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석유사 연구의 향후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한국 석유사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 대외 석유 정책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코포렛 리버럴리즘이 한국에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근현대 한국 석유사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한 정책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석유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석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석유 회사 관련 자료를 발굴함과 동시에 기업사 연구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석유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 또한 심화하고, 석유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지평의 확대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폭넓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석유, 한국 석유사,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 국제 석유 네트워크, 코포렛 리버럴리즘

I. 머리말

석유는 20세기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근대의 출발이 석탄과 함께였다면 석유는 근대와 현대를 연결하면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의 가치는 단

지 발전기를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20세기는 가히 석유 문명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석유는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초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아스피린도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근현대 석유의 역사는 미국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인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이 언급하였듯이 ‘자본주의와 기업의 성장과 발전,’ ‘국가 전략과 국제 정치 및 권력과 뒤엉킨 밀접한 관계,’ ‘탄화수소 사회(Hydrocarbon Society)와 탄화수소 인간(Hydrocarbon Man)의 출현 과정’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¹⁾ 즉, 근현대 석유의 역사는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로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제 석유 시장을 장악한 ‘세븐 시스터즈(Seven Sisters)’로 이어지는 국제 독점 자본 성장의 역사이자, ‘석유 사회’화 과정의 역사였다.²⁾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지금까지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y, OPEC)가 국제 석유 시장에서

1) Daniel Yergin, *The Priz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 Power*, New York: Free Press, 2009(대니얼 예긴 지음, 김태유·허은영 옮김, 『황금의 샘』 1·2, 라의 눈, 2017).

2) ‘세븐 시스터즈(Seven Sisters)’는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 현재 ExxonMobil), 뉴욕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 현재 ExxonMobil),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 현재 Chevron), 텍사스 석유 회사(Texas Company, 현재 Chevron), 걸프 석유 회사(Gulf Oil Company, 현재 Chevron), 영국-이란 석유 회사(Anglo-Iranian Oil Company, 현재 BP), 로열 더치 셸 석유 회사(Royal Dutch Shell Oil Company, 현재 Shell)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세븐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Anthony Sampson, *The Seven Sisters: The Great Oil Companies and the World They Shaped*, New York: Viking Press, 1975(앤서니 샘프슨 지음, 정영민 옮김, 『누가 지배하는가? 석유』, 숲속의 집, 2002)와 Carola Hoyos, “The New Seven Sisters: Oil and Gas Giants Dwarf Western Rivals,” *Financial Times*, March 13, 2007 참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세븐 시스터즈는 자본과 기술을 기반으로 아직까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근현대 한국 석유의 역사 또한 세계 석유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884년 일본 상인에 의해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석유 제품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1964년 한국 최초의 정유공장인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한국 석유 시장은 태평양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국제 석유 회사의 전유물이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한국 석유 시장은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즉, 스탠다드 바쿰 석유 회사(Standard Vacuum Oil Company), 로열 더치 셸 석유 회사(Royal Dutch Shell Oil Company), 캘리포니아-텍사스 석유 회사(California-Texas Oil Company)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되었다.³⁾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 하에 석유 중심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여러 정유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석유화학산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지만 비산유국이라는 실정과 자본의 한계로 인해 한국은 걸프 석유 회사(Gulf Oil Corporation), 유니언 오일(Union Oil) 등 외국 국제 석유 회사의 영향을 계속 받았다.

한국에서 석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석유 파동 직후부터였다. 연구 목적은 석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의 에너지 상황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한국 석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개괄적으로

3) 권오수는 세븐 시스터즈라는 조어를 빌려 스탠다드 바쿰, 셸, 캘리포니아-텍사스 석유 회사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라 칭하였다. 쓰리 시스터즈에 관해서는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석유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미국사연구』 47, 2018 및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이 석유 회사들의 1930년대 아시아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1933-194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었다. 연구 경향 또한 한국 석유 산업을 정유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으로 한정하여 이해한 결과, 1964년 울산정유공장 준공으로부터 시작된 정유 산업의 발전 과정에 주로 집중되었다.⁴⁾

한국 석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1989년 김동욱이 해방 후 귀속기업체인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처리 과정을 연구한 후 한국 역사에서 석유를 찾는 연구는 한동안 없었다. 한국 석유에 대한 연구는 기술과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기술적 내지 정책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한국 석유의 제도사적 접근,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에 대한 다층적 접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석유 정책, 해방 후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 등, 한국 석유에 관한 역사적 접근은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석유사의 종합적 이해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석유사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이 분야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현황

1. 1970년대~1990년대

한국에 석유가 도입된 것은 1880년대부터이지만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4) 석유 산업은 일반적으로 원유의 생산으로부터 시작해 정유를 거쳐 생산된 석유 제품의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한 산업을 의미하나, 한국에서는 비산유국인 현실을 반영하며 대체로 정유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趙東成, 『國際資源論: 石油問題를 中心으로』, 博英社, 1981, 213쪽.

로 자리매김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1964년 한국 최초의 정유공장인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된 이래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준비하면서 석탄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에너지 정책을 석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1970년대까지를 석탄 에너지 시대로, 1970~1980년대를 석유 에너지 시대로, 1980년대 이후를 원자력 에너지 시대로 설정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에 발생한 연탄 파동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가 급작스럽게 석유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⁵⁾ 그러나 1973년 중동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석유 파동은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 석유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갖 시작한 상황에서 석유 파동이 주는 충격은 훨씬 더 컸다. 이에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석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석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 또한 석유 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석유 파동을 겪은 직후 당시 한국석유협회⁶⁾ 전무이사였던 김병건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석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나, 아직 석유에 관한 책자가 ‘殆無’하다고 밝히면서 1974년 『석유사전』을 출간하였다.⁷⁾ 그는 이 책을 통해 석유에 대한 기본적인 화학적 이해와 함께 당시 석유와 관련된 통계를 중심

5) 한국의 석유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1971) 전력 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동국사학』 65집, 2018, 146~148쪽 참조.

6) 한국석유협회는 석유 유통업자들이 설립한 이익단체로 현재 한국석유유통협회의 전신이다. 이 협회는 1946년 임의단체인 대한석유협회로 시작하여, 1956년 정부로부터 법인체로 정식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로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다. 이후 한국석유협회(1969~1980),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1980~1988)을 거쳐, 198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석유유통협회로 활동 중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50년사』, 한국석유유통협회 50년사 편찬팀, 2006, 147~241쪽 참조.

7) 金炳建, 『石油事典』, 文化堂出版社, 1974.

으로 전 세계적인 석유 현황과 추세, 세븐 시스터즈, 석유수출국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석유 자본의 이해, 한국의 석유 상황을 소개하였다. 이후 석유 업계에서 간행된 석유 관련 개설서 또한 이 책의 구성과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서술되었다. 김병건은 이 책에서 한국 석유사의 흐름 또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근현대 한국 석유의 역사를 석유소비의 초창기, 일제시대, 통제배급시대, 석유의 국내생산, 자유판매시대(경쟁시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유 제품의 유통 방식에 초점을 맞춰 해방 후 한국 석유사의 전개 과정을 통제배급시대와 자유판매시대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즉, 그는 미군정기 미군의 점령지행정구호원조(GARIOA) 자금으로 공급되는 석유 제품의 민간 배급을 위해 설립된 석유 배급회사(Petroleum Distributing Agency, PDA)로부터 시작해, 정부 수립 후부터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원조 자금으로 공급되는 석유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석유저장회사(Korea Oil Storage Company, KOSCO)를 거쳐, 1964년 준공된 울산정유공장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 제품의 유통을 대한석유공사가 독점 관리한 시기까지를 통제배급시대로 규정하였다. 이어 1968년 호남정유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래 1969년 호남정유 주식회사의 정유공장, 1972년 경인에너지의 정유공장 등 다양한 정유 공장이 설립되면서 석유 판매가 다원화되는 시기를 자유판매시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석유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개괄적이고 단편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⁸⁾

1978년 한차례 더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의 이해는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조동성은 걸프 미국 본사 기획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할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1981년 『國際資源論: 石油問題를 中心으로』를 집필하였다. 그는 석유에 대한 기

8) 金炳建, 『石油事典』, 1974, 213~226쪽.

본적인 이해와 함께 1973년 석유 파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전개 과정을 국제 석유 시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또한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국제 석유 시장의 추세와 관련하여 분석하면서 석유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조동성은 한국 석유 산업의 발전사를 서술함에 있어 1960년대 이후 정유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 석유 회사와 관련성, 즉, 울산정유공장과 걸프 석유 회사, 호남정유와 칼텍스, 경인에너지와 유니언오일, 쌍용정유와 이란국영석유 회사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⁹⁾ 특히 그는 한국 석유사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와 국제 석유 회사 간의 관계를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 석유 산업은 국제 석유 회사가 한국에 대한 투자로부터 필요한 기대 수익을 얻고, 한국 정부가 국제 석유 회사로부터 경제 발전에 대한 도움을 받는 상호 이익 관계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¹⁰⁾

한편 조동성과 비슷한 입장에서 국제경영학자인 파리보즈 가다르(Fariborz Ghadar)의 연구가 주목된다.¹¹⁾ 당시 석유에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 추세가 산유국, 국제 석유 회사, 선진국의 석유 산업에 주로 집중한 것과 달리, 그의 연구는 아르헨티나, 인도, 한국 등 '석유수입개발도상국(가다르는 석유를 수입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을 oil-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OIDCs로 표현하였다.)'의 석유 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1970년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성장과 세븐 시스터즈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국제 석유 시장의 변화 과정에서 석유수입개발도상국의 석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9) 趙東成, 『國際資源論』, 1981, 214~220쪽.

10) 趙東成, 『國際資源論』, 230~231쪽.

11) Fariborz Ghadar, *The Petroleum Industry in Oil-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oronto: Lexington Books, 1983.

열망, 외환 요건의 고려와 제한, 공급의 안정적 확보, 이상 3개 사항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석유수입개발도상국이 석유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유 공급의 '유연성(flexibility)'을 허용해야 하며, 석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 석유 회사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전망도 제시하였다. 즉, 한국과 같이 석유를 수입하는 개발도상국과 국제 석유 회사의 연대적 관계를 구축해서 석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다르는 그의 저서에서 별도의 장을 할애해 한국 석유 역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 석유사를 정유 산업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한국의 에너지 및 원유 공급지의 다변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¹²⁾

이후 한국 석유에 관한 전반적인 접근은 대한석유협회가 중심이 되었다. 1980년 당시 국내 정유 회사인 대한석유공사,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석유, 이상 다섯 개 석유 회사는 정유업계의 이익단체로 대한석유협회를 설립하였다.¹³⁾ 대한석유협회는 설립 후 국내 석유 관련 현황 및 각종 석유 사업 자료 및 석유 관련 통계 등을 망라하여 석유협회보, 석유연보 및 각종 조사 보고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석유와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며 한국 석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대한석유협회 간행물 중 특히 1990년 출간된 『석유산업의 발전사』는 석유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⁴⁾ 비록 이 책은 전문적인 역사 연구서는 아니고, 정유산업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그간 서술되지 않았던 개항기와 일제시기 한국 석

12) Ghadar, *The Petroleum Industry*, pp.155~181.

13) 대한석유협회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석유산업의 발전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1990, 301~371쪽 참조. 1980년 대한석유협회가 발족되자, 한국석유협회와 대한석유협회는 명칭 문제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石油協 명칭是非」 『경향신문』 1980년 7월 19일자.

14) 대한석유협회, 『석유산업의 발전사』, 1990, 147~300쪽.

유사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고, 근현대 한국 석유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 정유회사에서도 자체 간행물을 통해 한국 석유사를 서술하였으나 자기 회사의 발전 과정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석유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되었다.¹⁵⁾

이상의 한국 석유에 대한 접근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김동욱의 연구는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석유사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⁶⁾ 김동욱은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관심사인 해방 후 귀속기업체 처리 과정의 한 사례로서 조선석유주식회사의 부침 과정을 1950년대 울산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이 회사의 분투 과정과 결부해 다루었다. 조선석유주식회사는 1935년 일제가 한국에 독자적인 석유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석유 회사이다. 조선석유주식회사는 설립 직후 곧바로 정유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36년 원산정유공장을 완공하였고, 자체 판매 조직을 통해 석유 제품을 판매하였다. 1934년 제정된 「석유업법」,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설립, 원산정유공장의 가동 등 조선총독부의 석유 정책으로 인해 기존 한국 석유 시장을 장악하였던 쓰리 시스터즈는 사실상 한국 내 영업을 포기하였다. 이후 조선석유주식회사는 일제가 패망할 때 까지 한국에서 독점적인 석유 시장을 구축하였다.¹⁷⁾ 김동욱은 일제 강점기 조선석유주식

-
- 15) 개별 정유 회사의 간행물은 유공이십년사 편찬위원회, 『유공이십년사』, 주식회사 유공, 1982; 호남정유주식회사, 『湖南精油十五年史』, 호남정유주식회사, 1982; 雙龍五十年史編纂委員會, 『雙龍五十年史』, 雙龍五十年史編纂委員會, 1989; 주식회사 유공, 『油公삼십년사』, 주식회사 유공, 1993; LG-Caltex 정유, 『LG-Caltex 정유 30년사』, LG-Caltex 정유 30년사 편찬위원회, 1997 등이 있다.
- 16) 김동욱, 「해방이후 귀속기업체 처리과정에 관한 일연구: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사례」, 『경제사학』 13, 1989.

회사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해, 해방 후 이 회사에 대한 미군정 및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 과정, 이 회사의 민간 불하 실태와 참여 주체, 이 회사와 미국 원조와 관계,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국유화 및 청산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방 후 한국 석유 산업에 있어 귀속기업체의 실태와 민간 불하 과정을 밝히면서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과 연결시켰다.

2. 2000년대 이후

김동욱의 연구 이후 한국 석유사와 관련된 연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국 석유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분석들이 시도되었다. 연구의 중심은 여전히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 내지는 정유 산업의 발전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전 한국 석유사에 대한 접근이 대체로 국제 석유 회사와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염두에 둔 단편적 접근이었다면 정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주체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우선 김동완·김민호는 울산정유공장이 건설되는 과정을 기존 전형적인 발전국가론의 입장과 달리, 다양한 사회 공간적 요인들 간의 전략적 관계, 즉 ‘다중스케일(multiple scales)’의 전략 관계가 울산으로 결속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¹⁸⁾ 다중스케일은 정치지리학적 개념으로 기존 연구가 국가의 역할(단일스케일)을 중심으로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해했던 것에 반해 다양한 사회공간적 요인(다중스케일) 간의 상호 관계

17) 류상진, 「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2018, 143쪽.

18) 김동완·김민호, 「울산공업단지의 서막, 정유공장 건설의 정치지리」,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엮음, 『산업경관의 탄생: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알트, 2014.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¹⁹⁾ 김동완·김민호는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다중 스케일의 전략 관계를 울산이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지리적 조건으로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탈식민지적 유산,’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를 매개로 한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냉전 네트워크의 개입,’ 남궁연, 이병철, 김연수 등 ‘국내 주요 행위자로서 로컬과 글로벌을 연계하며 움직였던 재벌들의 전략적 행위’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울산정유공장 건설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 중심적 해석을 다양한 역사적 주체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곽경상은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석유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 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²⁰⁾ 그의 연구는 1950년대 울산정유공장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을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석유 시장이 미국 국적의 석유 회사 주도로 재편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그는 울산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술자들의 노력, 미국 국적의 석유 회사인 걸프뿐만 아니라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 회사인 파슨스(Parsons Corporation)의 한국 진출 모색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울산정유공장 건설이 추진된 역사적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편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한국 정유 산업의 성장 과정을 3

19) 다중스케일에 관해서는 박배균·김동완 엮음,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2013, 6~10쪽;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엮음, 『산업경관의 탄생』, 2014, 10~45쪽 참조.

20) 곽경상,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재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계획」, 『동방학지』, 176, 2016.

대 에너지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석유, 전력 산업과 연관지어 접근한 권오수의 연구 또한 주목된다.²¹⁾ 그는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의 대규모 전원개발계획과 급속한 석유 중심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설립된 민영전력회사에 주목하였다. 그는 당시 한국 전력 산업이 미국 석유 회사와 자원과 자본을 매개로 결부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당시 한국화약과 유니언 오일이 합작하여 설립한 경인에너지, 럭키와 칼텍스가 합작하여 설립한 호남정유의 호남 전력, 쌍용양회가 설립한 동해전력이 걸프 석유 회사와 장기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한국 전력 산업은 국제 석유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석유 수요의 증대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미국 석유 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권오수는 또한 당시 정부의 대규모 전원개발계획이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전개되었다고 하며, 1966년 연탄파동 직후 정부가 의도적으로 병커시유(Bunker C Fuel Oil) 등 발전용 석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화력 발전용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권오수는 또한 미국 정부와 쓰리 시스터즈의 긴밀한 관계가 해방 직후 한국에서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²²⁾ 즉, 그는 해방 후 불안정한 한국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 한국에서 이윤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쓰리 시스터즈의 이해관계가 자립적인 신생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점철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미군정기 미 점령군의 동아시아 석유 정책과 연관지어 쓰리 시스터즈의 한국 진출 과정을 추적하고 미군정과 쓰리 시스터즈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규

21) 권오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71)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2018.

22)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석유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2018;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2020.

명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 수립 직후 한미원조협정과 별도로 한국에 경제협조처 원조자금으로 공급될 석유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1949년 체결된 한미석유협정의 준비 과정을 미국 정부와 쓰리 시스터즈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49년 3차례에 걸쳐 6개의 협정이 체결된 한미석유협정의 체결 과정을 통해 미국 특유의 공-사 협력 양식이 한국 정부와 상호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존 한국 석유 관련 연구에서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직후 한국의 석유 산업과 미국의 대한석유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미국 정부와 자국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연구가 대체로 해방 후 시기에 집중된 것과 달리 류상진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석유 산업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²³⁾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석유 통제 정책을 주로 분석한 그는 우선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석유 수급과 배급 구조의 변화 과정을 통해 파악하고, 이로 인한 당시 석유 부족 상황과 사회적 변화상을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그는 1934년 「석유업법」의 제정과 1935년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 내 석유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 쓰리 시스터즈에서 조선석유주식회사로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시체제기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료정책을 획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밝혔다. 류상진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석유 정책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중일전쟁 이후 휘발

23) 류상진, 「전시체제기 조선 내 석유통제와 배급 단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5, 2017; 류상진, 「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 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 변화」, 2018; 류상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의 대용연료차량 보급 정책과 운용」, 『한국근현대사연구』 86, 2018.

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목탄과 카바이드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용연료차량을 적극적으로 보급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책이 운용되는 실태를 분석하였다.²⁴⁾

한국 석유사를 개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었다. 여영섭은 한국 석유 관련 협정, 법령, 규약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석유사를 개괄하였다.²⁵⁾ 특히 그는 한국 석유의 제도사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석유사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1880년대 한국에 석유가 도입된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1934년 일제에 의해 제정된 「석유업법」의 도입기, 「석유업법」의 적용 시기,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 적용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해방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에 의해 석유가 통제된 시기를 '미군정 시기'로 구분하고, 1949년 1월에 체결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대한석유 저장회사 간의 협정」으로부터 시작하여, 1955년 체결된 한미석유협정 체제 하에 석유가 운영되던 시기까지를 '한미석유협정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어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이 제정되어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되고, 1964년 「한미석유협정」이 체결되어 대한석유공사가 울산정유공장을 통해 한국 석유 운영을 독점하던 시기를 '대한석유공사법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후 1970년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이 사업법이 개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제정 석유사업법 시기,' '제1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기,'

24) 석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개항기 한국의 석유와 스탠다드 석유 회사(Standard Oil Company)의 한국 진출에 관해서는 Harold F. Cook, *Pioneer American Businessman in Korea: The Life and Times of Walter David Townsend*,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81; 하지연, 「타운센드 상회(Townsend & Co.)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Donald G. Southerton, *A Yankee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A Historical Novel*, Lincoln: iUniverse, Inc., 2006, pp.21~24 등 참조.

25) 여영섭, 『석유 135년, 이 땅에서의 기록』, 지식과 감성, 2015.

‘제2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기,’ ‘제3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석유사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또한 석유 관련 법령과 함께 한국 석유에 관한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향후 한국 석유사 연구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에서는 2006년 간행한 『석유유통 50년사』를 통해 석유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국 석유사를 개괄하였다.²⁶⁾ 한국 석유사의 출발이 외국 석유 회사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한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석유 유통은 한국 석유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석유 산업을 정유 산업의 역사에서 벗어나 석유 시장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I. 향후 연구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석유사 연구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미약하게나마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 석유사 연구는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석유 산업이 끼친 영향을 반영하며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한국 석유 산업의 역사를 정유 산업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며 주로 울산정유공장의 건설 과정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까지 일제 강점

26) 석유유통협회 50년사 편찬팀, 『석유유통50년사』, 석유유통협회, 2006.

기 석유 정책, 해방 직후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 등 시기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근현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석유가 끼친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 근현대 한국 석유사는 밝혀져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우선 한국 석유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20세기 국제 석유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미국의 대외 석유 정책이다. 미국은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석유를 기반으로 하여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게다가 세븐 시스터즈 중 뉴저지 스탠다드, 뉴욕 스탠다드,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텍사스, 걸프, 이상 5개 석유 회사는 미국 국적의 석유 회사였다. 미국 정부는 이 회사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며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미국 대외 석유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적 석유 회사 간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자 대외 석유 정책 연구자인 데이비드 페인터(David S. Painter)의 연구가 주목된다.²⁷⁾ 그는 미국 정부와 자국 석유 회사의 ‘공생(symbi-

27) 페인터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David S. Painter, *Oil and the American Century: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Oil Policy, 1941-1954*,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ainter, "The Marshall Plan and Oil," *Cold War History*, Vol. 9, No. 2, 2009; Painter, "Oil and the American Centu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99, Iss. 1, 2012 등이 있다. 페인터는 미국의 대외 석유 정책에 나타난 미국 정부와 석유 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공생 관계(symbiotic relationship)’라고 표현하였다. 페인터의 연구 외에도 미국의 대외 석유 정책에 대해 접근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Michael B. Stoff, *Oil, war, and American Security: The Search for a National policy on Foreign Oil, 1941-194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Aaron David Miller, *Search for Security: Saudi Arabian Oil and American*

osis)은 미국 혁신주의(progressivism) 시대로부터 민간 기업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킨 ‘공-사 간의 이해관계(public and private interests)’에서 발전하였다고 하며, 미국의 대외 석유 정책을 ‘코포렛 리버럴리즘(corporate liberalism)’ 또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분석틀로 접근하였다.²⁸⁾ 페인터는 이러한 미국의 공사 간 이해관계가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 초기 미국 정치, 경제력의 ‘국의 분출(outward thrust)’과 결부되면서, 미국은 세계 석유 자원을 통제하고, 산유국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싸우며, 소련의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페인터의 연구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사가인 마이클 호건(Michael J. Hogan)은 ‘미국식 코포라티즘(American corporatism)’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사 간 협력의 특수한 양식(peculiar patter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을 특히 강조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⁹⁾

한국도 미국의 해외 석유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개항기 미국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석유가 한국에 진출한 이래 이 회사는 한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일제 강점기 미국 국적

Foreign Polic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Irvine H. Anderson, *Armco, the United States, and Saudi Arabia: A Study of the Dynamics of Foreign Oil Policy, 1922-19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Stephen J. Randall, *United States Foreign Oil Policy Since World War I: for Profit and Security*,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5 등이 있다. 한편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후원 정책을 연구한 양홍석, 『미국 기업 성공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또한 미국의 공사 간 긴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28) 코포라티즘적 역사 인식과 코포렛 리버럴리즘에 대해서는 박인숙, 「20세기 미국사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2003; 심인보, 「혁신주의 시대 신국민주주의의 성격」, 『미국사 연구』 제23집, 2006; 심인보, 「혁신주의시대 NCF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등 참조.
- 29) Michael J. Hogan, “Review: The Search for a Synthesis: Economic Diplomacy in the Cold War,”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 15, No. 3, 1987.

석유 회사의 한국 진출은 스탠다드 바큘, 캘리포니아-텍사스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스탠다드 바큘과 거의 전적으로 통제권을 공유한 영국-네덜란드 석유 회사인 쉘의 진출 또한 있었다.³⁰⁾ 권오수가 쓰리 시스터즈라고 표현한 이상 3개 석유 회사들은 1934년 「석유업법」의 시행,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설립, 울산정유공장의 건설로 이어지는 일제의 석유 통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카르텔을 형성하며 한국 석유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였다. 태평양전쟁 발생과 함께 쓰리 시스터즈는 한국에서 철수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이 회사들은 미군의 석유 고문단으로 한국에 재진출하였고, 미군정을 대신해 석유배급회사를 운영하며 미군정기 내내 한국의 석유 운영을 담당하였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쓰리 시스터즈에 의한 석유 운영은 그대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한미원조협정과 별도로 경제협조처 원조 자금으로 한국에 공급될 석유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1949년 한국 정부로 하여금 3차레에 걸쳐 쓰리 시스터즈의 합작 회사인 대한석유저장회사와 석유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협정들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쓰리 시스터즈는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받았다. 한국 전쟁 발생 직후 쓰리 시스터즈 각 회사는 일본 또는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나 대한석유저장회사는 계속 한국에서 석유 운영을 담당하였고, 이 회사의 한국 석유 운영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1964년 한미석유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어졌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의 설립, 1964년 울산정유공장 준공 등 해방 직후부터 이어진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석유 운영에 대한 염원이 실현되었으나, 이 또한 걸프 석유 회사와 합작으로 이루어졌고, 대한석유공사 운영에 있어 걸프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1964년 울산정유공장 준공 이

30)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e Asian Policy, 1933-1941*, 1975, pp.3~4.

후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 석유, 극동석유 등 정유 회사 설립이 이어지면서 한국 석유 산업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또한 미국 등 국제 석유 회사와 합작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정유 회사 운영에 있어 그 영향력 또한 컸다.

한국 석유사 연구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석유 회사와 관계는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 정부와 석유 회사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만 국한되었고, 그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접근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내재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권오수가 미국 정부와 자국 석유 회사 간의 관계가 한국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한국인들과 관계 속에서 접근하여 미국 대한원 조정책의 친기업적 성격을 규명하였으나, 그의 연구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를 분석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적의 석유 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가 근현대 한국 석유사에 전반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석유사 연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한미 관계를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정부와 자국 기업 간의 관계가 한국에 적용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관련 분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은 한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제 석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한국 석유사 연구를 확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 석유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석유 시장의 복잡하고 난해한 네트워크는 국제 정치와 전략 및 입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개체로 작용하였다.³¹⁾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대한

31) 국제 석유 회사의 석유 카르텔에 관해서는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In-*

석유 정책 또한 태평양전쟁 시기 미국과 영국 석유 회사가 중심이 된 태평양·인도양 지역 석유 카르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연구 또한 국제 석유 네트워크의 전개과정을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²⁾ 이를 위해 미국의 대한 석유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지역으로 미국의 석유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확장하여 그 관련성을 밝히고,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원유 생산지인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통의 중심인 홍콩 등 여타 지역과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대한석유정책에 대한 이해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에서 미국의 대중 석유 정책과 스탠다드 오일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해 연구한 학위논문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은 한국 석유사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³³⁾

ternational Petroleum Cartel,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2; Burton I. Kaufman, "Oil and Antitrust: The Oil Cartel Case and the Cold War," *The Business History Review*, Vol. 51, No. 1, 1977 참조.

- 32) 권오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태평양·인도양 지역 석유 카르텔로 스탠다드 바쿰과 캘리포니아-텍사스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태평양·인도양 지역 석유 조정 위원회(Petroleum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Pacific and Indian Ocean Area)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2020, 42~43쪽.
- 33) 최근 중국에서 나온 중국 석유 관련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姜澤, 「美孚石油上海公司研究(1894~1953)」, 上海社會科學院 碩士學位論文, 2018; 王佩璇, 「近代東北地區美孚石油公司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李虹, 「美孚石油公司在中國的經營與管理(1931-1945)」,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鄭詩瑤, 「美國對華石油貿易問題研究: 以美孚石油公司爲例(1870-1941)」,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陳夢梅, 「美孚石油公司與民國時期廣西社會經濟互動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三輪 宗弘, 『太平洋戦争と石油—戰略物資の軍事と經濟』, 日本經濟評論社, 2004; 石井 正紀, 『石油技術者たちの太平洋戦争—戦争は石油に始まり石油

국제 석유 네트워크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석유 회사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기업사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미국, 영국 등 국제 석유 회사의 활동은 20세기 미국의 대외 팽창에서 분명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서술된 석유 역사 연구는 상당히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기업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⁴⁾ 따라서 미국

に終わった』, 光人社, 2008; 橘川 武郎, 『戦前日本の石油攻防戦』, ミネルヴァ書房, 2012; 石井 正紀, 『陸軍燃料廠—太平洋戦争を支えた石油技術者たちの戦い』, 潮書房光人新社, 2013; 中嶋 猪久生, 『石油と日本: 苦難と挫折の資源外交史』, 新潮社, 2015; 岩間 敏, 『日米開戦と人造石油』, 朝日新聞出版, 2016; 岩間 敏, 『アジア・太平洋戦争と石油: 戦備・戦略・対外政策』, 吉川弘文館, 2018 등이 있다.

- 34) 한국과 관련된 국제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쉘, 칼텍스 석유 회사의 역사를 다룬 저서는 다음과 같다. Gilbert Holland Montague, *The Rise and Progress of the Standard Oil Company*, Kitchener: Batoche, 2003; H. J. Haynes, *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 100 Years Helping to Create the Future*, New York: Newcomen Society in North America, 1980; James H. Bamberg, *History of British Petroleum, Vol. 2: The Anglo-Iranian Years 1928-195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Kendall Beaton, *Enterprise in Oil: A History of Shell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7; Marquis James, *The Texaco Story: The First Fifty Years 1902-1952*, New York: Texas Company, 1953; Paul H. Giddens, "Historical Origins of the Adoption of the Exxon Name and Trademark," *Business History Review* Vol. 47, No. 3, 1973; Paul Hendrix, *Sir Henri Deterding and Royal Dutch-Shell: Changing Control of World Oil, 1900-1940*, Bristol: Bristol Academic, 2002; Ralph W. Hidy and Muriel E. Hidy, *History of Standard Oil Company (New Jersey): Pioneering in Big Business, 1882-1911*, New York: Harper, 1955; Ralph W. Hidy, George S. Gibb and Henrietta M. Larson, *History of Standard Oil Company (New Jersey): New Horizons, 1927-1950*, New York: Harper, 1955; Ron Chernow, *Titan: The Life of John D. Rockefeller Senior*, New York: Random House, 1998; Ronald W. Ferriter, *History of British Petroleum, Vol. 1: The Developing Years, 1901-193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Steve Coll, *Private Empire: ExxonMobil and American Power*, New York: Penguin Books, 2013; Stephen Howarth and

정부의 대외 석유 정책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함께 석유 회사 자료를 발굴하여, 미국의 대외 석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내부의 움직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 팽창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명확하게 파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석유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심화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한국 석유 관련 정부 측 자료와 함께 조선석유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석유 회사가 생산한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한국 석유 산업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적 관계와 결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 석유가 도입된 이래 나타난 사회적·문화적인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폭넓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21.03.31. 투고 / 2021.04.14. 심사완료 / 2021.04.19. 게재확정)

Joost Jonker, *A History of Royal Dutch Shell, Vol. 2: Powering the Hydrocarbon Revolution, 1939-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tephen Howarth, *A Century in Oil: The "Shell" Transport and Trading Company 1897-1997*,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8; Wayne Henderson and Scott Benjamin, *Standard Oil: The First 125 Years*, Osceola: Motorbooks International, 1996.

[Abstract]

Research Status and Prospect of Korean Oil History

Kwon, Ohsoo

Research on Korean oil history began shortly after the 1973 oil crisis, with the provision of measures to overcome Korean energy problems. However, the approaches to Korean oil history was outlined and briefly as a supplement to the policy recommendations by oil experts. The research trends also focused mainl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oil refinery industr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lsan refinery in 1964. Since then, research on Korean oil history has been approached and expand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he disposing process of the Vested, the institutional history,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Ulsan refinery, the oil policies during Japanese occupation, and the U.S. oil policy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ubjects to be studied for a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of Korean oil history. This article will present prospects of research on Korean oil history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be deepened research on the U.S. oil policy toward Korea, which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Korean oil histor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process of applying the American corporate liberalism to Korean oil history. Secondly, since Korean oil history has developed around the international oil network, the spatial scope of research should be expanded. Lastly, it is necessary to be deepened the inde-

pendent development of Korean oil industry, and analyzed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oil. This expansion of research will help to understand more broadly the meaning of oil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 Keyword

Oil, Korean Oil History, U.S. Oil Policy toward Korea, International Oil Network, Corporate Liberalism

[참고문헌]

1. 한국 석유사 관련 연구

곽경상,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재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계획」, 『동방학지』 176, 2016.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석유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미국사연구』 47, 2018.

권오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1971) 전력 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동국사학』 65, 2018.

김동완·김민호, 「울산공업단지의 서막, 정유공장 건설의 정치지리」,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엮음, 『산업경관의 탄생: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알트, 2014.

김동욱, 「해방이후 귀속기업체 처리과정에 관한 일연구: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사례」, 『경제사학』 13, 1989.

金炳建, 『石油事典』, 文化堂出版社, 1974.

대한석유협회, 『석유산업의 발전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1990.

류상진, 「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2018.

류상진, 「전시체제가 조선 내 석유통제와 배급 단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5, 2017.

류상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의 대용연료차량 보급 정책과 운용」, 『한국근현대사연구』 86, 2018.

박배균·김동완 엮음,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2013.

- 박인숙, 「20세기 미국사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접근」, 『국제지역 연구』 제7권 제2호, 2003.
- 석유유통협회 50년사 편찬팀, 『석유유통50년사』, 석유유통협회, 2006.
- 심인보, 「혁신주의의 시대 신국민주의의 성격」, 『미국사 연구』 23, 2006.
- 심인보, 「혁신주의시대 NCF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雙龍五十年史編纂委員會, 『雙龍五十年史』, 雙龍五十年史編纂委員會, 1989.
- 양홍석, 『미국 기업 성공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 여영섭, 『석유 135년, 이 땅에서의 기록』, 지식과 감성, 2015.
- 유공이십년사 편찬위원회, 『유공이십년사』, 주식회사 유공, 1982.
- 趙東成, 『國際資源論: 石油問題를 中心으로』, 博英社, 1981.
- 주식회사 유공, 『油公삼십년사』, 주식회사 유공, 1993.
- 진상태, 『석유인생반세기』, 영인, 2001.
- 하지연, 「타운센드 상회(Townsend & Co.)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 한국석유유통협회, 『석유유통50년사』, 한국석유유통협회 50년사 편찬팀, 2006.
- 호남정유주식회사, 『湖南精油十五年史』, 호남정유주식회사, 1982.
- LG-Caltex 정유, 『LG-Caltex 정유 30년사』, LG-Caltex 정유 30년사 편찬위원회, 1997.

2. 미국의 대외 석유 정책 관련 연구

- Aaron David Miller, *Search for Security: Saudi Arabian Oil and American Foreign Polic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 Anthony Sampson, *The Seven Sisters: The Great Oil Companies and the World They Shaped*, New York: Viking Press, 1975(앤서니 샘프슨 지음, 정영민 옮김, 『누가 지배하는가? 석유』, 숲속의 집, 2002)

Burton I. Kaufman, "Oil and Antitrust: The Oil Cartel Case and the Cold War," *The Business History Review*, Vol. 51, No. 1, 1977.

Carola Hoyos, "The New Seven Sisters: Oil and Gas Giants Dwarf Western Rivals," *Financial Times*, March 13, 2007.

Daniel Yergin, *The Priz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 Power*, New York: Free Press, 2009(대니얼 예긴 지음, 김태유·허은영 옮김, 『황금의 샘』 1·2, 라의 눈, 2017).

David S. Painter, "Oil and the American Centu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99, Iss. 1, 2012.

David S. Painter, "The Marshall Plan and Oil," *Cold War History*, Vol. 9, No. 2, 2009.

David S. Painter, *Oil and the American Century: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Oil Policy, 1941-1954*,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Donald G. Southerton, *A Yankee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A Historical Novel*, Lincoln: iUniverse, Inc., 2006.

Fariborz Ghadar, *The Petroleum Industry in Oil-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oronto: Lexington Books, 1983.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Petroleum Cartel*,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2.

Harold F. Cook, *Pioneer American Businessman in Korea: The Life and Times of Walter David Townsend*,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81.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1933-194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Irvine H. Anderson, *Armco, the United States, and Saudi Arabia: A Study of the Dynamics of Foreign Oil Policy, 1922-19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Michael B. Stoff, *Oil, war, and American Security: The Search for a National policy on Foreign Oil, 1941-194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Michael J. Hogan, "Review: The Search for a Synthesis: Economic Diplomacy in the Cold War,"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 15, No. 3, 1987.

Stephen J. Randall, *United States Foreign oil Policy Since World War I: for Profit and Security*,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5.

3. 일본 석유사 관련 연구

橘川 武郎, 『戦前日本の石油攻防戦』, ミネルヴァ書房, 2012.

三輪 宗弘, 『太平洋戦争と石油—戦略物資の軍事と経済』, 日本経済評論社, 2004.

石井 正紀, 『陸軍燃料廠—太平洋戦争を支えた石油技術者たちの戦い』, 潮書房光人新社, 2013.

石井 正紀, 『石油技術者たちの太平洋戦争—戦争は石油に始まり石油に終わった』, 光人社, 2008.

岩間 敏, 『アジア·太平洋戦争と石油: 戦備·戦略·対外政策』, 吉川弘文館, 2018.

岩間 敏, 『日米開戦と人造石油』, 朝日新聞出版, 2016.

中嶋 猪久生, 『石油と日本: 苦難と挫折の資源外交史』, 新潮社, 2015.

4. 중국 석유사 관련 연구

姜澤, 「美孚石油上海公司研究(1894~1953)」, 上海社會科學院 碩士學位論文, 2018.

李虹, 「美孚石油公司在中國的經營與管理(1931-1945)」,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王佩璇, 「近代東北地區美孚石油公司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鄭詩瑤, 「美國對華石油貿易問題研究: 以美孚石油公司爲例(1870-1941)」,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陳夢梅, 「美孚石油公司與民國時期廣西社會經濟互動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5. 국제 석유 회사 관련 연구

Gilbert Holland Montague, *The Rise and Progress of the Standard Oil Company*, Kitchener: Batoche, 2003.

H. J. Haynes, *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 100 Years Helping to Create the Future*, New York: Newcomen Society in North America, 1980.

James H. Bamberg, *History of British Petroleum, Vol. 2: The Anglo-Iranian Years 1928-195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Kendall Beaton, *Enterprise in Oil: A History of Shell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7.

Marquis James, *The Texaco Story: The First Fifty Years 1902-1952*, New York: Texas Company, 1953.

Paul H. Giddens, "Historical Origins of the Adoption of the Exxon Name and Trademark," *Business History Review*, Vol. 47, No. 3, 1973.

Paul Hendrix, *Sir Henri Deterding and Royal Dutch-Shell: Changing*

- Control of World Oil, 1900-1940*, Bristol: Bristol Academic, 2002.
- Ralph W. Hidy and Muriel E. Hidy, *History of Standard Oil Company (New Jersey): Pioneering in Big Business, 1882-1911*, New York: Harper, 1955.
- Ralph W. Hidy, George S. Gibb and Henrietta M. Larson, *History of Standard Oil Company (New Jersey): New Horizons, 1927-1950*, New York: Harper, 1955.
- Ron Chernow, *Titan: The Life of John D. Rockefeller Senior*, New York: Random House, 1998.
- Ronald W. Ferrier, *History of British Petroleum, Vol. 1: The Developing Years, 1901-193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teve Coll, *Private Empire: ExxonMobil and American Power*, New York: Penguin Books, 2013.
- Stephen Howarth and Joost Jonker, *A History of Royal Dutch Shell, Vol. 2: Powering the Hydrocarbon Revolution, 1939-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Stephen Howarth, *A Century in Oil: The "Shell" Transport and Trading Company 1897-1997*,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8.
- Wayne Henderson and Scott Benjamin, *Standard Oil: The First 125 Years*, Osceola: Motorbooks International, 1996.

